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美 그린에 '신지에 폭풍'

5언더파 단독 선두

■ LPGA US여자오픈 3R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지연' 신지에(19·하이마트)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마저 오를 기세다.

신지에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파인스의 파인니들스골프장(파71·6천616야드)에서 계속된 US여자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10번홀까지 2타를 줄여 중간합계 5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약천후 탓에 경기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날이 어두워져 3라운드 경기를 마친 선수는 4명에 불과했지만 신지에는 1, 2라운드 연속 언더파 스코어를 낸 데 이어 3라운드에서도 선전을 펼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등장했다.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던 신지에는 이날 28홀을 치르는 강행군에도 흔들림없이 타수를 줄여나갔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작년 삼금왕, 다승왕, 신인왕을 석권하고 올해도 4승을 수확해 삼금왕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지에는 코스 세팅이 세계 골프대회 가운데 가장 까다롭다는 US여자오픈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46홀 동안 신지에는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260야드라는 만만찮은 장타력을 과시하면서도 페어웨이 안착률 86%, 그린 적중률 74%에 출당 평균 퍼팅 개수 1.65개라는 세계 정상급 실력을 보였다.

1, 2라운드 내내 언더파 스코어를 작성하면서 선두권을 달린 브라질 교포 출신 안젤라 박(19)도 신지애에 1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에 살아 남았다.

신지애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와 3라운드를 한꺼번에 치른 안젤라 박은 2라운드에서 1타를 줄였지만 3라운드에서 10번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를 까먹었다.

3라운드가 절반 가량 치러진 이날 신지애와 안젤라 박 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1998년 박세리(30·CJ)의 우승에 이어 9년만에 한국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2라운드를 1오버파 73타로 마친 김주미(23·하이마트)는 13번홀까지 2타를 줄여 공동 7위(1언더파)로 올라섰고 이지영(22·하이마트) 역시 12번홀까지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공동 7위에 합류했다.

박세리는 13번홀까지 무려 4타를 줄여 공동 11위(이븐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대회 두번째 우승도 바라보게 됐고 12번홀까지 치른 장정(27·기업은행)과 김주연(26), 그리고 11번홀을 마친 박인비(19) 역시 공동 11위 그룹에 가세했다.



신지애가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니들스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골프 3라운드 3번홀에서 퍼트를 성공한 후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한국 선수 우승을 가로 막을 걸림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어 '반쪽 세계랭킹 1위'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22홀 경기를 치른 끝에 신지애에 1타차 2위로 올라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끝없는 추락'

'1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일(이하 한국시간) US여자오픈골프대회 2라운드 도중 기권한 위성미는 올해 3개 대회에 출전해 기권, 꼴찌, 그리고 또 기권이 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1월 손목이 부러져 예정됐던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전을 포기하고 치료와 재활에 매달렸던 위성미는 지난 6월 1일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 킷트리뷰트에서 복귀하면서 3차례 대회를 치렀지만 형편없는 경기력과 매너없는 태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위성미의 경기력은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천재'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복귀전인 킷트리뷰트 1라운드에서는 16번홀까지 무려 14오버파라는 황당한 스코어

US여자오픈 2R 도중 또 기권을 3개 대회 '기권-꼴찌-기권'

를 적어냈고 이어진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는 꼴찌로 컷을 통과하다니 3라운드 83타, 4라운드 79타를 치며 최하위인 84위로 대회를 마쳤다.

절치부심 끝에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는 첫날 11오버파 83타로 망신을 당하다 2라운드에서는 9개홀만 치르기도 6타를 잃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U-20 월드컵 축구

한국, 4일 브라질전 이렇게

“허리 압박 후 역습 노려야”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결과야 아쉽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슬러 4일 오전 8시45분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2차전을 대비해야 한다. 상대는 우승 후보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폴란드와 1차전에서 0-1로 일격을 당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동현 대표팀 감독은 “브라질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길어오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브라질의 패배는 한국으로서는 틀림없는

“MF와 협력 수비 절대적”

약재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남은 2경기 중 한 경기만 이겨 1승1무1패만 되면 16강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브라질의 패배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브라질전에 대한 해답은 이날 폴란드가 보여준 경기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폴란드는 전반 27분 만에 왼쪽 풀백 크리슈토프 크롤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해

10명이 싸우고도 전반 23분 터진 제고르츠 크라코비악의 프리킥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승리를 거뒀다.

브라질의 파상공세도 폴란드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이날 폴란드-브라질전도 직접 관전한 이영무 위원장은 먼저 수비 조직력을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을 상대해 이기려면 오늘 폴란드처럼 수비를 강화해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개인 돌파를 당하더라도 동료들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일 오전(한국시간)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D조 1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신영록이 채지있게 슈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을 꿈꾸는 청소년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본선 첫 판에서 난적 미국과 아쉽게 비겼다.

청소년대표팀은 1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미국과 1차전에서 전반 16분 역습에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38분 신영록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역전하지 못한 채 1-1 무승부에 그쳤다.

아우들 ‘아쉬운 휴일’ U-20 월드컵축구 미국전 골 결정력 부족...1-1 비겨

한국은 개막전에서 브라질을 1-0으로 꺾는 과업을 일으킨 폴란드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브라질, 폴란드와 조별리그 남은 경기에서 승점 4 정도를 따내야 16강 진출을 안장할 수 있어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리틀 태극전사’들의 경기 운영은 뼈아팠다.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대부분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답게 매끄러운 연결 플레이로 상대를 위협해 갔다.

미국의 토마스 톤겐 감독이 경기 후 “한국과 승점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이청용(서울)을 중심으로 이상호(울산)와 김동석(서울)이

더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중원에서 플레이는 흡족할데 없는 플레이였다.

이청용의 경우 경기 초반 중앙은 물론 좌우를 오가며 신영록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두 차례나 만들어 주는 등 넓은 시야와 적절한 공간 활용, 빠른 패싱 감각 등으로 한국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청용 밖에는 안 보인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날 경기의 문제는 한국축구의 고질적 문제인 마무리 부재.

선수나 감독이나 협회 관계자나 다들 “초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 힘든 경기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무 위원장은 “포워드진에서 한 골 밖에 넣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적어도 2-3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

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슈팅 수는 한국이 17개, 미국이 8개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효 슈팅 수에서는 6대1이다. 득점 장면이 미국의 유일한 유효슈팅이었다.

후반 심영성(제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득점 찬스도 물론 한국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승점 1씩을 나눠 가지는데 그쳤다.

득점력을 높이려면 세트 플레이 상황을 비롯한 크로스도 물론 정확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의 열쇠는 결국 네트를 가르는 골이 터져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형들은 ‘즐거운 주말’ 배어백호 이라크전 대승 아시안컵 대비 사기충천

지난달 29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동의 전통 강호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후반 염기훈, 이천수, 이근호의 연속골에 힘입어 3-0으로 대승한 배어백호가 달콤한 주말 휴가를 마치고 2007 아시안컵을 위한 마지막 훈련에 돌입한다.

축대표팀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귀포에서 회복훈련을 마치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뒤 곧장 주말 휴가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서귀포 합숙훈련에서 쌓였던 피로도 풀고 6일 오후 아시안컵

‘결전의 장’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앞서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코칭스태프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대한축구협회 홍보국 이원재 부장은 1일 “김 배어백 감독이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휴가를 줬다”며 “선수들은 이날 오후 10시30분에 파주NFC에 다시 모여서 2일부터 하루 두 차례 마지막 조직력 다지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어백호는 5일 우즈베키스탄(오후8시·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평가전을 치른 뒤 6일 오후 인도네시아로 출발, 11일 자카르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파주NFC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사실상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이미 이라크전에서 다양한 선수 기용을 통해 베스트 11의 윤곽을 잡은 배어백 감독은 마지막 파주훈련을 통해 주전과 백업 멤버를 확정하고 끈끈한 조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